

논 단

비영어권 도서관 학술교류협정과 직원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 협정 추진

안 동 현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비영어권 도서관 학술교류협정 |
| II. AUASEP 개요 | 1. 현황 및 추진 배경 |
| 1. AUA | 2. 추진 성과 |
| 2. AUASEP | 3. 추후 계획 |
| III. 상호 방문 사례 및 의의 | V. 맺음말 |
| 1. 서울대학교 방문 | |
| 2. 칭화대학교 방문 | |
| 3. 의의 | |

I. 서론

우리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아시아대학연합(AUA: Asian Universities Alliance)의 직원교환 프로그램인 AUASEP(Asian Universities Alliance Staff Exchange Program)를 통하여 칭화대학교에서 1인이 서울대학교를 방문, 반대로 우리 대학에서 1인이 칭화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칭화대학교 측에서 원문복사 협정을 제안하여 중앙대출·상호대차실에서 방문자 의전 및 칭화대학교 방문을 전담하게 되

었으며 양측의 상호대차 시스템 비교, 원문복사 협정 추진 등을 중점으로 방문 프로그램 진행하였다. 이번 칭화대학교 방문 이후 아시아대학연합 소속 대학들과는 수월하게 원문복사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반면 이외의 방법을 통해 협정 체결을 시도한 대학들과는 체결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칭화대학교 방문을 통해 살펴본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대학도서관의 모습과 중국의 상호대차 서비스 시스템을 소개하겠다. 또한 칭화대학교 방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비영어권 도서관 학술교류협정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를 알아보고 협정 추진 현황을 통해 직원교환프로그램이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AUASEP 개요

1. AUA

아시아대학연합(AUA)은 2017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칭화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 동경대학교 등 총 15개 대학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에 칭화대학교, 북경대학교, 홍콩과학기술대학 3곳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1곳의 대학만이 연합 구성원으로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게 연합에 가입하였다. 아시아대학연합에서는 현재 직원 교환, 포럼 개최, 교수 및 학생 교환,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아시아대학연합

2. AUASEP

AUASEP(Asian Universities Alliance Staff Exchange Program)는 아시아대학연합의 직원 교환 프로그램으로 아시아대학연합의 주요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아시아 대학연합 소속 대학 직원이 타 소속 대학과 소통하고 교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년에 총 15명의 직원이 참가할 수 있고 최소 5일의 근무 일수를 채워야하며 사무국에서 최대 USD \$1000을 지원해주고 있다. 방문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재직 증명서와 초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칭화대학교 방문은 AUASEP를 이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칭화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파견 왔을 때에도 AUASEP를 활용하여 방문하였다.

Ⅲ. 상호 방문 사례 및 의의

1. 서울대학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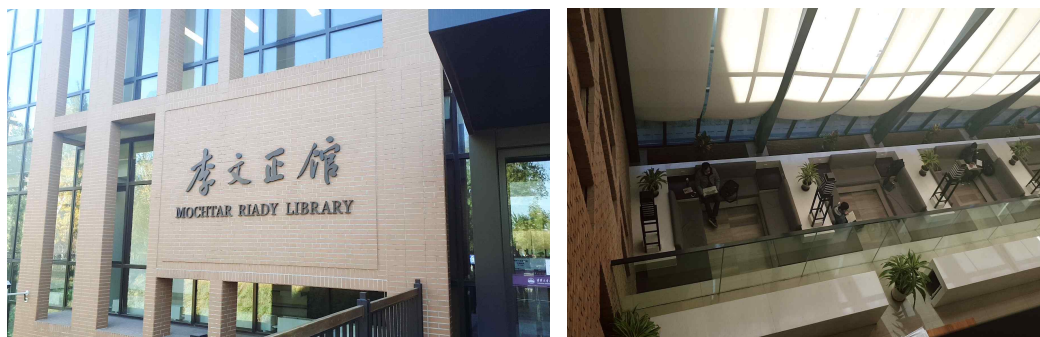
칭화대학교 측에서 원문 복사 협정 및 대학 간 교류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며, 8월 12일(일)부터 8월 21일(화)까지 9박 10일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상호대차실이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 서비스 팀장인 ZHANG Kunzhu가 8월 12일(일)에 한국에 도착하여 13일(월)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방문하였다. 첫 이틀간은 도서관과 캠퍼스 투어를 한 후 서울대학교의 상호대차 업무 방식을 실습하고, 그 외 상호대차 및 도서관과 관련하여 묻고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월 16일(수), 8월 17일(목)에는 반대로 칭화대학교와 칭화대학교 도서관, 상호대차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원문복사 협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ZHANG Kunzhu는 8월 20일(월)에 칭화대학교와 원문복사 협정 체결이 되어있는 성균관대학교에 방문하였고 21일(화)에는 상호대차실 직원 및 관장님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한 후 중국으로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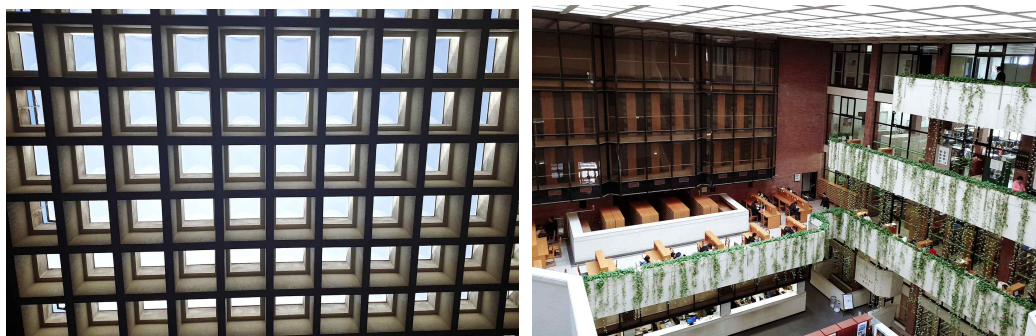
[그림 2] 서울대학교 방문

2. 칭화대학교 방문

2018년 10월 28일(일)부터 11월 3일(토)까지는 반대로 우리 학교에서 칭화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11월 1일(목), 2일(금)에는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장 담화가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행사 전에 원문복사 협정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체결하고자 담화 행사 기간을 포함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하였다. 칭화대학교 도서관은 노관(老館), 일부관(逸夫館) 그리고 이문정관(李文正館) 세 건물을 중앙도서관으로 하며 분관으로는 문과도서관, 경관(經管)도서관, 건축도서관, 법률도서관, 미술도서관, 금융도서관 총 6개의 분관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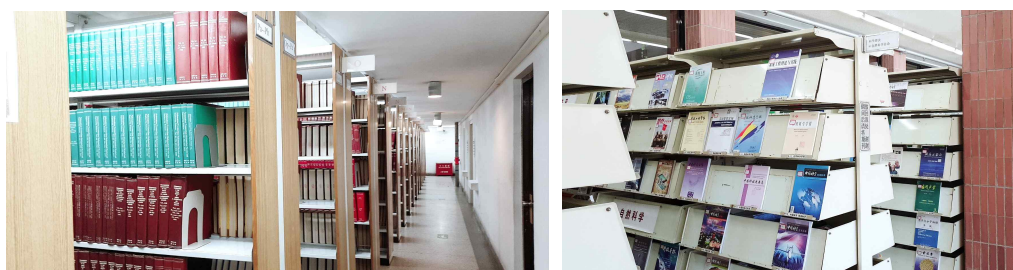


[그림 3] 이문정관



[그림 4] 일부관

일부관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중앙도서관 본관과 유사하게 직원 사무 공간, 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상호대차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건축물로서의 특징이라면 건물 가운데가 비어있고 천장을 유리로 하여 채광이 좋았다는 점이 있었다. 일부관 뿐만 아니라 문과도서관, 미술도서관 등 칭화대학교 도서관의 많은 곳이 천장을 유리로 하고 건물 가운데를 비워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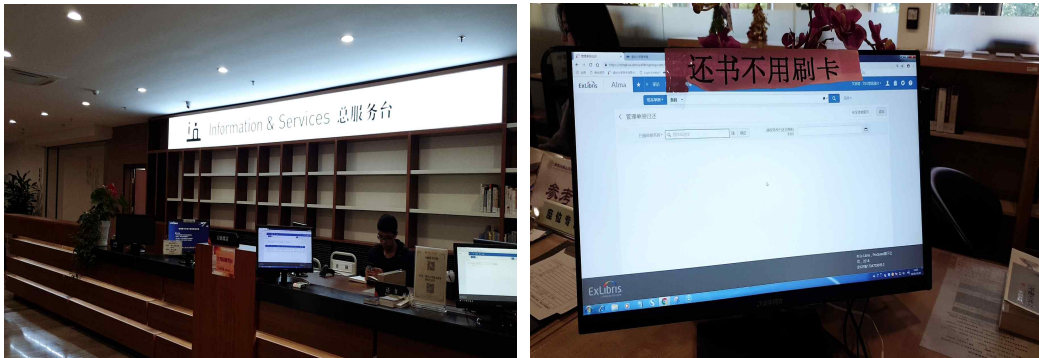


[그림 5] 연속 간행물실/ 신착 연속 간행물실

한편, 연속간행물실은 우리학교와 유사하게 연속간행물실과 신착 연속간행물실로 나뉘어있으나 차이점은 해외 연속간행물의 경우 저널의 분야를 나눈 후 알파벳 순서로 저널을 배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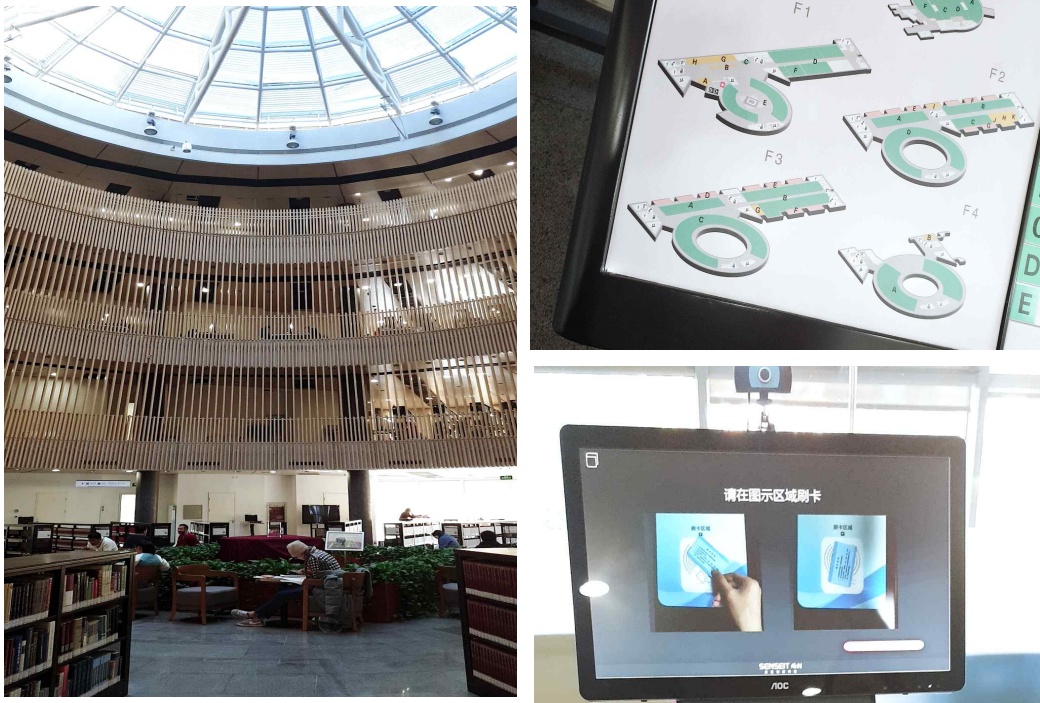
[그림 6] 연속 간행물실/ 신착 연속 간행물실



[그림 7] 대출실의 모습과 AL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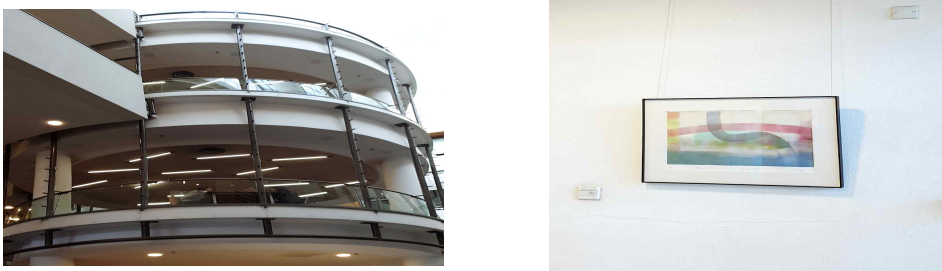
단행본과 중국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중국의 분류법에 따라 배열되어 있었으며 도서관 시스템으로는 ALMA를 2017년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었고 대출실의 경우 데스크에서 이용자에게 대출, 반납 처리를 해주었는데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분관 중에는 문과도서관과 미술도서관을 방문하였는데 앞서 서술하였듯이 천장을 유리로 하고 건물 가운데 공간을 비운 것을 볼 수 있었다. 문과도서관의 경우 열쇠 모양으로 건물을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도서관이 지식의 열쇠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였다. 또한 문과 도서관에는 고대 유물과 서예 및 미술 작품들이 열람실과 같이 어우러져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얼굴 인식을 통한 대출 시스템, 쾌적한 스터디룸 등이 인상적이었다.



[그림 8] 문과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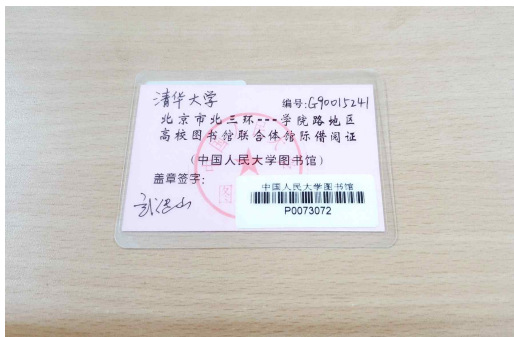
한편 미술도서관의 경우에는 마치 건물 안에 건물을 배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어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또한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기증 받아 전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위해 도서관 벽면에 레일을 설치하여 기증 받는 대로 작품을 줄에 달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 도서관 내에서 강의를 하고 미술 실기를 하는 등 학습 공간, 강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림 9] 미술도서관

상호대차의 경우 우리 학교와 칭화대학교는 확연한 시스템의 차이를 보였다. 국내 원문복사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RISS와 CALIS를 통해 자료를 신청/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신청/제공 해주었는데 우리와 다르게 PDF 파일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있었다. 웹상에서도 RISS는 신청 받을 도서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학술지 논문 복사 신청 건을 CALIS에 올리면 전체 대학 도서관 사서들이 신청 건 확인 후 해당 논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파일을 업로드해주는 방식이었다. 더욱 다른 것은 실물 대차였는데 우리의 경우 웹과 메일을 통해 신청 건을 주고받고 택배 시스템을 통해 책을 수신, 발송하고 있는 반면에 칭화대학교는 웹을 통해 신청 건을 주고받지만 책 수령은 책을 수령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가서 이용자가 직접 수령 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국립 중앙도서관 장서를 실물대차할 경우에는 도서관 사서가 직접 책을 대출/반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칭화대학교의 경우 한 주에 두세 번 국립 중앙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반납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국토가 넓다보니 실물대차 보다는 원문복사에 중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국외 실물대차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다소 적극적이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3명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칭화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국내 담당 3명, 국외 담당 2명으로 상호대차 업무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었다.





[그림 10] 상호대차 카드와 중국 국립 중앙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데스크와 직원

10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수)까지 칭화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상호대차 서비스가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는지 체험하고 이야기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원문복사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11월 1일(목), 2일(금)에는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장 담화가 있었다. 담화에는 칭화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총 11곳 대학의 도서관장 혹은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먼저 간략한 칭화대학교와 칭화대학교 상호대차에 대한 소개가 있는 후 칭화대학교와 일곱 대학교 간 원문복사 협정 서명식을 진행하였다. 우리 학교 또한 11월 1일(목)자로 칭화대학교와 원문복사 협정을 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의 상호대차 시스템 소개를 할 시간이 주어져 관장님께서 기조연설 하신 후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내외 상호대차 신청/제공 방식과 통계 그리고 상호대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고 많은 대표자들이 택배 발송 시스템과 KERIS 원문 발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그림 11] 원문복사 협정 서명식과 서울대학교 상호대차 시스템 소개



[그림 12]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장 담화

이후 각 도서관 대표자들의 도서관 소개가 있었는데 도서관 소개 중 특징적이었던 것은 아랍에미리트 대학의 경우 남성도서관, 여성 도서관이 따로 있었던 것, 그리고 많은 대학이 RDM(Research Data Management)과 미디어 센터를 도서관의 미래로 보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시아권 대학들이다 보니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는 없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미래의 도서관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소개를 마친 후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장 담화에 참석한 대학들 간에 대형 출판사의 횡포를 막고, 아시아권 대학 도서관간의 연합과 교류를 위해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 리그(AUALL:Asian Universities Alliance Library League)을 출범하여 회원 도서관 간 원문 복사, 실물 대차 등 자료의 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와 관련하여 토론이 이어졌다. 여전히 이 리그의 미션은 무엇인지, 어떠한 플랫폼을 사용해야할지, 어느 대학을 필두로 추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2019년 2월 현재까지 메일을 통해 출범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11월 2일(금)에는 북경대학교에서 북경대학교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CASHL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북경대학교 고문헌 자료실과 국제학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북경대학교 고문헌 자료실의 경우에는 경비가 매우 삼엄하여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열람을 할 수 없었고, 귀중본의 경우에는 전시된 고문헌을 관람만 할 수 있었다. 한편 국제학 도서관에서 특징 적인 것은 만화 도서관을 부속시설로 두고 있는 것인데 방대한 양의 만화책들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의 만화책들을 소장 중이었다.



[그림 13] 북경대학교 고문헌 자료실과 국제학 도서관 만화 도서관

이번 칭화대학교, 북경대학교 방문과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장 담화를 통해 중국 대학 도서관들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고 아시아대학연합 소속 대학들을 토대로 비영어권 도서관 학술교류협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칭화대학교, 북경대학교, 홍콩과학기술대학의 발표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세 학교와 모두 협정 체결한 대학으로 언급되어 더욱 해외 도서관 원문복사 협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후 추진한 우리 학교의 비영어권 도서관 학술교류협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또한 살펴보려고 한다.

IV. 비영어권 도서관 학술교류협정

1. 현황 및 추진 배경

기존 도서관 자료의 국문, 영문 편중으로 인해 비영어권 연구자의 경우 개별적, 개인적 채널을 통해 자료를 취득해 왔다. Alma analytics로 분석한 결과 국문, 영문 단행본의 비율이 80.51%를 차지하여 비영어권 자료 비율은 19.49%에 그치고 있으며([표1]), 국문 단행본을 제외할 경우 영어가 62.2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랍어나 인도어의 경우에는 소장 책 수가 각각 511건, 23건에 그쳐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표2]). 더불어 도서관 구입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요구하는 국내 및 영어권 자료를 중심으로 도서를 구입하게 되므로 비영어권 자료의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언어별 소장 현황

(2018. 12. 31. 기준)

소장순위	언어별	소장 책 수	소장비율(%)	한국어 제외 소장비율(%)
1	한국어	1,318,878	48.34	—
2	영 어	877,677	32.17	62.26
3	일본어	235,053	8.61	16.67
4	독일어	116,587	4.27	8.27
5	중국어	103,575	3.80	7.35
6	프랑스어	49,043	1.80	3.48
7	스페인어	9,568	0.35	0.68
8	러시아어	6,708	0.25	0.48
9	이탈리아어	2,741	0.10	0.19
10	라틴어	2,487	0.09	0.18
11	기 타*	6234	0.23	0.44
합 계		2,728,551	100	100

[표 2] 기타 언어별 소장 현황

(2018. 12. 31. 기준)

언어별	소장 책 수	소장비율(%)	한국어 제외 소장비율(%)
아랍어	511	0.02	0.04
인도어	23	—	—
네덜란드어 등	5700	0.21	0.40
합 계	6234	0.23	0.44

실제로 [표3, 4]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입수한 국문 및 영문 자료의 비율이 90.8%를 차지하며 비영어권 자료 구입비율은 반대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주요 언어별 구입 현황

(구입 기간 : 2016. 1. ~2018. 12.)

구 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기타*	합 계
책수	23,258	25,729	1,124	1,107	1,012	866	300	555	53,951
비율(%)	43.11	47.69	2.08	2.05	1.88	1.61	0.56	1.03	100

[표 4] 기타 언어별 구입 현황

(구입 기간 : 2016. 1. ~2018. 12.)

구 분	그리스어	라틴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아랍어	힌디어	그 외
책수(555책)	198	194	39	28	10	9	6	71
비율(1.03%)	0.37	0.36	0.07	0.05	0.02	0.02	0.01	0.13

※출처: Alma Analytics, 중앙도서관(분관 포함) 단행본 통계

이러한 도서관의 장서 현황과는 다르게 지역 연구의 다양성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특히나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언어권의 도서관들과의 원문복사 협정 체결을 통해 비영어권 언어 도서 수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비영어권 지역 연구자들의 자료 수요를 일부나마 충족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칭화대학교와의 원문복사 협정을 시작으로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장 담화 참석을 통해 여러 대학 도서관 중 연구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권의 도서관장들을 직접 만나 원문복사 협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협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2. 추진 성과

칭화대학교를 시작으로 아시아대학연합의 소속 대학인 북경대학교, 홍콩과학기술대학, 아랍에미리트대학교, 뭄바이공과대학과의 원문복사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원문복사 협정 추진 도서관 13곳 중 총 6곳의 대학이 아시아대학연합 소속이며 협정체결 완료 도서관 6곳 중 5곳이 아시아대학연합 소속이었다. 따라서 비영어권 도서관 원문복사 협정 추진에 있어 AUASEP와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장 담화에 참석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서관장 담화 참석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협정 체결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정 조항의 해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협정관리에서도 편리함이 있었다. 이 외 협정 추진 도서관들의 경우 우리 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있거나, 언어권을 대표할 수 있거나, 연구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곳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송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표 5]를 통해 현재 우리 학교의 원문 복사 체결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표 5] 원문복사 협정체결 현황

국가/지역	기관명	협정체결 현황	비고
중국	칭화대학교	체결 완료	AUA
	북경대학교	체결 완료	AUA
홍콩	홍콩과학기술대학	체결 완료	AUA
	홍콩중문대학	체결 예정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체결 완료	
	동경대학교	체결 거부	AUA
	큐슈대학교	체결 거부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	체결 예정	
	모스크바 국립 도서관	체결 진행 중	
인도	델리대학교	체결 예정	
	뭄바이공과대학	체결 완료	AUA
아랍	아랍에미리트대학	체결 완료	AUA
	카이로대학	체결 예정	

협정 체결을 완료한 기관과는 상호 이메일을 통해 사서간 자료를 신청/제공하게 되며 현재까지 체결이 완료된 기관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자에게 원문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에게는 저작권법 준수 조항에 따라 출력물로만 자료가 제공되며 각 국가 혹은 지역별 저작권법에 따라 단행본의 복사 범위는 제한이 있고, 기관에 따라 연 최대 신청 건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협정 체결을 통해 기존에는 CALIS, NII, OCLC 등 중간 기관을 거쳐 소장 기관에 원문 복사를 요청해야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소장 기관에 해당 원문 복사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어 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무료로 원문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협정 체결을 통해 기존 원문복사 신청 방식에서 요금과 소요기간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표 6]으로 정리해보았다.

[표 6] 협정 체결 기관 요금 및 소요기간

언어권	기관명	기존 협력기관	협정체결기관
중국어권	칭화대학	◦ CALIS - 요금: 기본10위엔+장당2위엔+우편료 - 소요기간: 3~10일	◦ 상호 협정 - 요금: 무료 - 소요기간: 1~5일
	북경대학		
	홍콩과기대	◦ OCLC - 요금: \$0~\$20 - 소요기간: 3~15일	
힌두어권	뭄바이공대		
아랍어권	아랍에미리트대학		
일본어권	홋카이도대학	◦ NII - 요금: ¥35~50(장당)+우편료	◦ 상호 협정 - 요금: 우편료 - 소요기간: 1~5일

3. 추후 계획

추후에는 현재 협정 체결 예정인 대학을 중심으로 원문복사 협정 체결을 완료하여 비영어권 자료 확보를 할 계획이며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중앙 유라시아 연구소 등 학내 비영어권 연구기관의 수요 또한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원문 복사, 실물 대차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 리그(AUALL) 협의에 참여하여 우리 학교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 교류 프로그램, 혹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서 혹은 관장 간 대화를 통해 협정을 추진한다면 추진 방향 설정과 체결 이후 협정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기에 그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지식 재산권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자료 구비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또 비영어권 지역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영어권 도서관 간 협정을 통한 협력 강화를 선택한 지금,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 장 담화 참석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더 다양한 국제 행사 및 포럼 참석 등을 통해 해외 도서관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화대 방문 및 아시아대학연합 도서관장 담화 참석을 통해 협정 체결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져 통신의 발달로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협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조항 해석의 간극을 좁히고 협정 체결 추진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직접 소통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직원 교류프로그램이나 각종 해외 도서관 행사 참석 시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과 이를 위한 협정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도서관의 발전과 협정 체결의 효율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지만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대학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청화대학교 도서관 직원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청화대학교 도서관의 여러 모습들과 우리 학교 도서관을 비교해보며 어떠한 점이 다

르고 어떤 것이 이용자에게 더 편리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 내의 대학 도서관들이 당면한 문제들과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구상이 매우 비슷한 점을 관장 간 담화를 통해 들을 수 있어 인상 깊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아시아의 대학 도서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였다. 국내의 도서관만 바라보던 시야가 해외까지 넓어질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